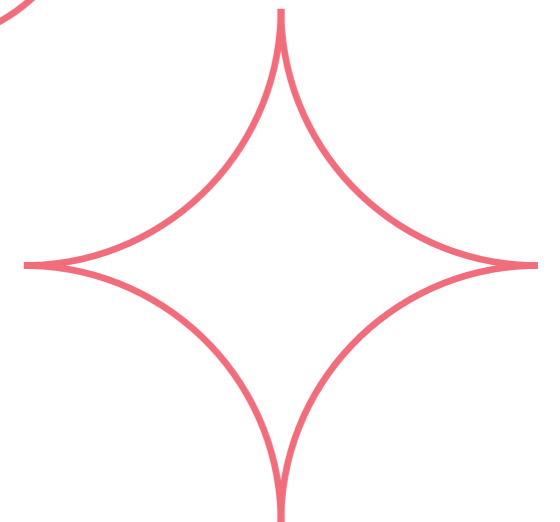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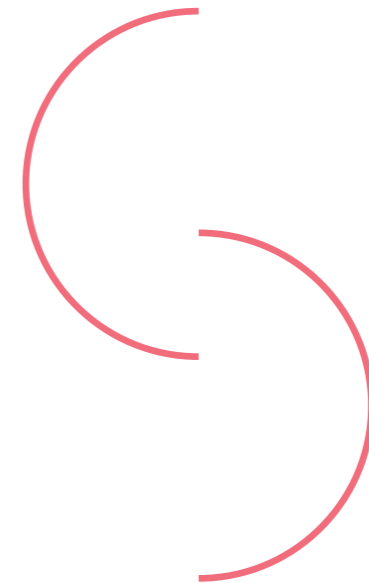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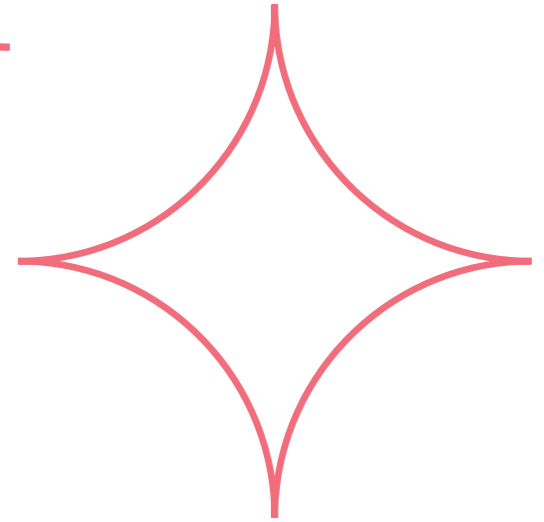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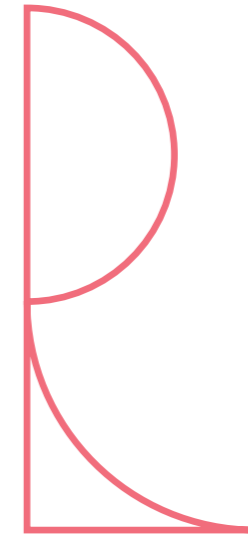


Bravo!

A R S ☆

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018
Annual Report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CONTENTS

04

Greetings
인사말

06

Special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 06 **Bravo! Artists**
여러분의 예술활동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예술인들이 더 많은 꽃을 피우도록 힘을 주세요
포기 하지 않은 예술혼,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 10 **예술인 복지정책**
예술인 복지, 구제가 아닌 권리로!
- 12 **예술인과 기업·기관 인터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하는 삶을 이야기하다
- 20 **예술인들의 말**
예술이 일상에 가까워지는 순간
- 22 **2019 달라지는 문화예술 복지**

24

Business Highlights
숫자로 보는 예술인 복지 사업

30

Overview
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32 미션 및 비전
34 연혁
36 조직도
38 예산 현황

40

What we do
4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소개
42 창작역량강화
44 직업역량강화
46 불공정관행 개선
50 사회안전망 구축
52 예술활동증명 및 기반 조성
54 통계자료

58

News
58 2018 주요 활동 뉴스



예술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희섭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책자는 우리 재단이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1년 동안 재단이 한 일들이 다양한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2018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돌아해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그를 드러내기에 앞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가 여전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특히 미투 운동에서 드러났듯이 여성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발표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년간 예술인의 가구 총수입은 평균 4,225만원으로 2015년 4,683만원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예술인 가구 총수입 2,000만원 미만이 23%로 드러났으며, 예술활동 개인 수입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2.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술인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의 발전을 말하는 것이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우리 재단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체결한 서울시 지정 '산재 직업병 및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전망 병원'인 <녹색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무계약 상태로 창작이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작지만 소중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시행됩니다. 또한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희섭

SPECIAL.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Bravo! Artists

여러분의 예술활동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자녀들의 학업을 끝까지 챙기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예술인들이 생각보다 우리 곁에 많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긴 인생길에 반드시 꽃길을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예술활동은 곧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가 됩니다.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지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윤석화 이사장

윤석화 이사장은 연극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연극인복지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더 많은 꽃을
피우도록 힘을 주세요



한국음악발전소
최백호 소장

최백호 소장은
한국음악발전소를 이끌며
어려운 선후배 뮤지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꿈을
접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보다
관심을 갖고 예술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함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화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으니깐요. 혹시 지금
그만둘까, 하시는 예술인이 있다면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기 하지 않은 예술혼,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신을 갖고
예술활동을 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막막한 길을
개척해주셨던 선배님들이 계셨고,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동료들과 열정 있는 후배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문화예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에 대해 여전히
많은 고민을 하는 예술인들이 있을
겁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술혼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와 격려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배우 김영철 님

배우 김영철 님은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으로,
현장 예술인들이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 구제가 아닌 권리로!

글.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예술인, 정부 정책 관료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예술인 복지정책. 단순 구제가 아닌 예술인의 정당한 권리로서의 복지정책, 한국 예술인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본다.

Better A

한국형 잉떼르미땅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주지하듯이, 프랑스 공연예술인들의 복지를 가장 잘 구현한 제도는 잉떼르미땅(intermittent)이다. 단어가 함축하듯이 불규칙하게 작업하는 예술인들이 일 년 365일 내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쉬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서 다음 창작 작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 잉떼르미땅 제도 때문에 프랑스의 문화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2010년 들어 프랑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자, 이 제도의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하려는 조치를 정부가 내리려 했을 때, 프랑스 공연예술인들이 아비뇽 축제에서 시위를 벌이며 국민들에게 '예술-삶'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예술인 복지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예술인들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는 낮지 않다. 경제가 어려워도 예술인들은 우리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큰 예산 삭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작년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들을 특수한 노동을 하는 직업군으로 인정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형 잉떼르미땅 제도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2년 동안 예술계 현장에서 오랜 토론을 한 끝에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에 의해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가입된다. 예술인이 기준보수 보험료를 1.85% 중 0.8%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에 준하여 일정 기간 기여 일수를 채우면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Life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문체부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예술인들의 더 나은 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새 예술정책 -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예술인 복지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요한 예술정책 중의 하나이다.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에서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의제를 강조하면서 예술인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새 예술정책-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보고서에도 예술인 복지정책이 아주 중요한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다. <새 예술정책>은 주요 추진과제로 “예술인 직업 환경 및 복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술인의 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술 기반 일자리지원, 예술인 대상 직업 교육 활성화, 창업지원 등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사회안전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규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에 보다 많은 예술인이 포섭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예술인 생활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지원, 금융지원, 자녀 보육-교육을 지원하고, 예술인 자신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예술인패스를 확대 시행하려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예술인 복지정책은 일시적, 제한적, 사업 중심적인 성격이 강해서 복지가 갖는 근본적인 지원의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술인 복지 예산도 많지 않아서 그것마저도 예술인들에게는 공모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예술인들이 얼마 안 되는 복지 재원을 받으려고 또 다른 지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만일 본연의 창작 작업에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예술인 복지정책은 아닐 것이다.

예술인 복지정책, 예술인, 정부 정책 관료, 시민사회 이해와 공감 필요

문체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활동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기초 생활과 생계지원을 해주는 것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짜는 실행단계 이전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예술인과 정부 정책 관료,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정책은 바로 “구제에서 권리로”,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활동지원에서 생활지원으로”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가난한 예술가를 구제하는 정책을 넘어 창작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생활지원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은 예술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정책전문가들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예술인들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시각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예술인 복지정책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연구와 담론 활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하는 삶을 이야기하다



원로 예술인

홍순창

Hong Soon Chang

배우 홍순창님은
53년째 연기활동을
하며 한결같이 무대를
누비고 계십니다.
2018년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아 더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3년 배우 인생의 원동력을 얻다 더 나아지는 예술인 복지 기대

1967년 연극배우로 데뷔, 올해로 배우 생활 53년째. 칠십을 넘긴 원로배우 홍순창 선생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다. “지금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로 행복하죠. 나를 찾는 곳, 내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 자체로 즐거운 일이에요.” 홍순창 선생의 첫마디에서 누구보다 연기를, 무대를 사랑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53년째 배우로서의 삶을 살며 어찌 어려움이 없었을까. 스스로 하류인생 연기를 해왔다고 밝힌 홍순창 선생, 흔히 말하는 A급 스타배우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연기만으로는 가정경제를 책임질 수가 없어 음식점 창업도 두번이나 했었다.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미도 못 봤다는 홍순창 선생. 예나 지금이나 연기하는 배우들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몇 년 전 일이 없어 힘들었던 시기, 지인으로부터 원로 예술인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전화상담을 하고, 서류작성에 관한 것들을 방문상담해가며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홍순창 선생. 얼마 후 지원대상이 되었다는 결과를 들었고, 덕분에 다시 연극 무대에 오를 원동력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2018년 다시 한번 지원을 받으며 53년째 배우의 삶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원로 배우, 예술인들에게 힘이 많이 되죠.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더 많은 배우들, 예술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남 나주의 한 극단과 연이 닿아 얼마 전까지

공연한 홍순창 선생. 선배들 챙기며 연기하는 극단 식구들 덕분에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연극을 하는 환경은 어렵고 팍팍한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홍순창 선생에게서 그동안 지나온 삶의 무게, 연기와 무대를 향한 갈증, 갈망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소극장에서 소규모 극단이 하는 공연 참 어려워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환경 자체도 미약하죠. 우리 시대가 워낙에 어렵게 시작했고 그런 환경이 이젠 체득이 되었지만 후배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다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연기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환경, 그래도 맡은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후배들을 향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 ‘빛’이 꼭 ‘스타’라는 타이틀이 아니어도 예술의 한 분야에서 똘똘하며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빛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선생이다.

예술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논의할 시대가 되었다는 것, 예술인 복지를 위해 앞장서 힘이 되어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며 나이든 예술인들이 맥없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게 더 많은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홍순창 선생. 어렵던 시절,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힘이 되어 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게 고맙다며 혹여 포기하기 싶은 순간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손을 내밀어도 좋겠다고 말한다.



이 환
Lee Hwan

이환 퍼실리테이터는
2018년 군포시
대야미마을
교육공동체내
연극공동체
'느루'를 창립하고
참여예술인들,
주민들과 함께 연극
기획, 극본,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소통의 창구, 예술인의 사회 공감능력을 키워준다

“예술인들과의 연결고리가 더 촘촘해졌다고 할 수 있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환 퍼실리테이터가 비교적 안정적인 공연기획사를 나온 이유는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생각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며 다양한 시도를 하던 중 2017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알게 되었고, 참여예술인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참여예술인 활동을 하면서 그는 그가 하고 있는 공연 연출, 기획, 극본 등의 일들을 예술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2018년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참여예술인들과 군포시 대야미마을 교육공동체 내에 연극공동체 '느루'를 창립하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연극 활동을 진행했다. 그렇게 무대에 오른 연극 '우리가 있었다'는 LH공사가 대야미마을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야미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일에 상상력을 더한 작품이다.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같이 대본을 쓰고 연기 연습을 하고 홍보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분들이 '연극'이라는 것, 더 나아가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대학로까지 참여예술인이 하고 있는 연극을 직접 보러 오시기도 하면서 연극과 예술문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신 거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있었다'를 성공적으로 공연한 것 그 이상으로 보람을 느끼는 대목이라고 이환 퍼실리테이터는 말한다. 이환 퍼실리테이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하면서 많은 예술인들과 생각을 나누고,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에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했다. 더불어 불안정한 예술인의 수입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어 이러한 사업이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3년 이어지면서 예술적 성과도 담보하고 이에 따른 수입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혼자 고립되는 예술인들이 많거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어찌하면 예술인들의 소통창구가 아닐까 해요. 서로 잘 모르는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여 기관과 협업하며 예술적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거든요. 또, 다른 팀들의 사례를 접하며 사회와 어울려 살아야 하는 공감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자신만 해도 공연 관계자들 속에서 살다 참여예술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나름의 네트워크가 생겼다고 한다. 예술인들이 자신만의 율타리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환 퍼실리테이터다. 그런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이고 꾸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술인들의 '예술' 하는 삶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최 제 현
Choi Je Heon

최제현 퍼실리테이터는 (사)강릉생명의숲 사무국, 숲을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숲 여행, 숲 환경보호운동, 숲터뷰 등을 통해 숲 그리고 사람들과 더욱 친밀해지는 '도시숲메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관계의 사이를 예술로 잇는 사람

예술인으로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퍼실리테이터란 관계의 사이를 예술로 잇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2015년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에 참여하며 2년은 참여예술인으로, 2년은 퍼실리테이터로 꾸준히 활동해온 최제현 퍼실리테이터의 말이다. 태백으로, 강릉으로 원주로 또다시 강릉으로... 해마다 도시를 옮겨가며 활동하면서 과연 '퍼실리테이터란 무엇일까' 스스로 역할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 끝에 내린 답이었다.

설치미술가로 활동 중인 최제현 퍼실리테이터가 고향인 강릉으로 내려온 것은 2012년 4월. "저는 설치미술이라는 말보다 '그림 그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대학 1학년 때, 주말마다 강릉에 왔어요. 그때 달리는 차창 밖으로 자연의 컬러가 확확 변하는 걸 보면서 색깔의 변화, 강렬한 색이 주는 아름다움과 안정감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동네예술가를 꿈꾼다'는 최제현 퍼실리테이터는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인 (사)강릉생명의숲과 손잡고 '도시숲메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벌였다. 지역의 여행작가인 고기은 씨와 힙합뮤지션 엘리펀디(최상아)가 참여예술인으로 함께 했다. 숲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숲 조성 운동과

생태교육 및 산림치유 활동, 숲 환경 보호활동 등을 전개 중인 (사)강릉생명의숲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기관의 가치 활동에 현재적 시선을 담아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를 신청한 경우였다.

(주)강릉생명의숲 사무국 3인의 관계자들과 최제현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한 3인의 예술인들이 파견활동 기간 내내 1대 1 짝꿍으로서 교감하였고, 서로를 인터뷰하는 '숲터뷰'를 통해 마음의 거리감을 좁혔다. 숲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모집해 3개월간 자연과 예술 사이를 분주히 오갔던 '도시숲퍼' 프로젝트, 도시숲퍼들과 함께했던 '곰솔바닥 굽어내기' 활동, 해안식생환경 조성을 위해 비 온 다음 날 해변가에 투하했던 '씨앗폭탄' 던지기 프로젝트 등은 예술인들에게도 숲의 중요성과 환경보호활동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기관 관계자, 예술인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자 친구였고, 좁아진 시야를 넓혀주는 자극제였다.

"사업을 통해 사무국 식구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점점 높아짐을 느꼈어요. 여행작가, 음악가 등 참여예술인들과의 협업 과정도 심장을 뛰게 했죠. 또 '예술인들과 작업을 같이하면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지원사업의 또 다른 결과물이라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활동에 호기심을 갖고 '같이 일해보자'라는 러브콜이 종종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요."

최제현 퍼실리테이터는 혼자 작업할 때와는 달리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지난 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열어준 판 위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그는 이제는 '스스로 판을 벌여도 될 만큼의 힘을 얻은 것 같다'고 환히 미소지었다.





기업과 예술인을 이어주는 색다른 협업의 장, 트레비어 홈 페스티벌

(주)비어포트브로이 황찬우 과장(우) & 황동윤 퍼실리테이터(좌)

Hwang Chan Woo
Hwang Dong Yoon

수제맥주 '트레비어'로 유명한 (주)비어포트브로이는 2018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를 통해 '제1회 트레비어 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황동윤 퍼실리테이터는 대금연주자, 공연기획자로 활동 중이며 '파래소극악예술단' 단장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울산에서 수제맥주 양조를 시작하여 전국 300여 수제맥주 전문점에 '트레비어'를 납품 중인 (주)비어포트브로이는 크래프트 비어 업계의 선두주자다. 트레비어의 슬로건은 '좋은 맥주를 만들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것. 이런 트레비어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를 알게 된 것은 2018년 울산문화재단의 안내를 통해서였다. "처음엔 건물 외벽에 포토존을 설치해 브루어리 방문 고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트레비어 홍보도 하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때마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를 알게 되면서 '이거다' 싶었죠." 황찬우 과장은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협업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를 이어주고 협업의 장을 마련해주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는 그 자체로 존재 의미가 충분하다."고 했다. 트레비어의 포토존 조성 사업은 황동윤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들을 만나 '예술공간 조성'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애초 프로젝트 공간으로 낙점했던 곳에 새 기계가 자리 잡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하게 프로젝트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막막했죠. 하지만 운 좋게도 트레비어 측에서 맥주 원료인 '홉' 수확 시기에 맞춰 '홉 수확제'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더욱이 페스티벌은 규모가 있기에 기업의 예산지원 없이는 진행이 불가피한데 트레비어에서 적극

지원해준 덕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펼칠 수 있는 동력까지 얻었죠. 무엇보다 예술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맡겨주는 부분이 참 고마웠습니다." 홉 수확 시기에 맞춰 2018년 9월 2일 열린 '트레비어 홈 페스티벌'은 500여 관객이 참여할 만큼 성황을 이뤘다. 주렁주렁 매달린 홉 넝쿨을 배경으로 한 주 무대,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효모포장 운영을 통한 체험존 마련,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맥주캔 만들기 등 브루어리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다. 트레비어 홍보 효과도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배포용 '레이블' 기획에도 예술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를 추진하며 예술인들과 워크숍을 갖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직원들, 예술인들 간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고 결국 이것이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를 추진할 기업들은 반드시 예술인들과의 친목, 소통의 자리를 한번쯤 마련하시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비어포트브로이 황찬우 과장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가 보다 확장되기 위해서는 매칭 시 발생하는 기업과 예술인 수의 언밸런스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황동윤 퍼실리테이터는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이 예술인들의 생태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며 이 또한 하나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예술이 일상에 가까워지는 순간, 예술가들의 말

기업과 예술인이 협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예술인들의 주업인 창작활동 외에도 다양한 면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계기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승주
일반미술

이 사업을 하며 만난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았던 좋은 에너지들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나의 쓸모 있음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내년에도 나는 살아 있을 거란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생존을 확인받는 기분, 엄청나죠.

노은석
대중음악

예술인이 더 좋은 예술인이 되도록,
예술적 개입으로 파견기관은 보다 유연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예술로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그 행동들이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섬세한 역할을 하는 것이 퍼실리테이터가 아닐까?

강석태
일반미술

예술에 대해 제 스스로 내리던 정의가 많이 바뀌게 됐어요.
과거의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시사교양 PD이어서 사실을 다루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 제 영역에서는 꼭 집어 예술이라 말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해왔던 작업들도 예술의 한 부분이었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예술인들이 각자의 장르를 나누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본인 장르가 확장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심명진
영화, 일반미술

엄청난 재능도 필요도 없고 말을 유려하게 잘할 필요도 없어요.
착하고 선한 사람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유연성은 중요해요.
협업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돌발 상황에도, 어떤 유형의 사람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송지은
일반미술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잊고 싶어 하고, 잊으려 하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을 만나고 느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쩌면 있는 것과 잊는 것, 이 둘은 어쩌면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되뇌어본다.

박선영
일반음악

2019 달라지는 문화예술 복지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문화예술 복지제도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변경, 개선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삶, 예술인이 행복한 삶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 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이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17년 6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증액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7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문화 여가 향유 기회도 확대됩니다. 문체부는 전국 규모의 어르신 문화경연대회, 거리 축제 등을 망라하는 '어르신문화축제'도 개최합니다. 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어르신 체육교실(555개), 치료형 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80개 시설) 등도 지원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기간	2019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0년 말까지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시간 단축, 일과 쉼의 균형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으로 국민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다양한 캠페인(여행이 있는 금요일, 여가친화기업 선정 등)과 국민 전반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여가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도입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에 더해 2019년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됩니다.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총 사용 금액 100만원입니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이 2019년 처음 추진됩니다.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 지원은 다년간의 집중지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54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작품성, 창작역량, 전문성,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공연예술 창작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에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3년 동안 공연 제작 및 유통에 소요되는 경비와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함께 행복한 예술인 복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옹자) 제도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사대상 예술인의 72.7%). 일반 서민정책금융제도는 대출 용도가 창업자금에 한정되거나 자격 요건에 예술인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예술인은 혜택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올해 예산 80억원을 들여 신설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옹자)' 제도는 이러한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소액생활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주택자금 대출(최대 40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옹자) 제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바랍니다. 2019년 6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0년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대상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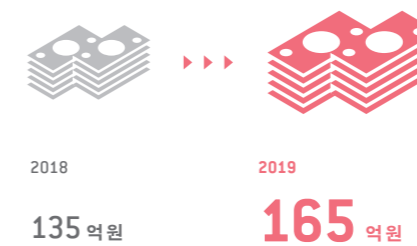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대상자를 2018년보다 1,000명 늘어난 총 5,5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각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배점제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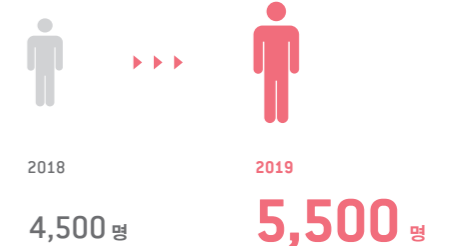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 기획사업 도입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는 예술인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존 공모·협업사업 외에 기획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원사업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획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팀을 이루어 예술협업 활동을 사전기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면접식의 참관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합니다. 한편, 예술인의 활동 편의성을 고려한 활동보고서 양식 개선으로 보고서 작성 부담도 축소하였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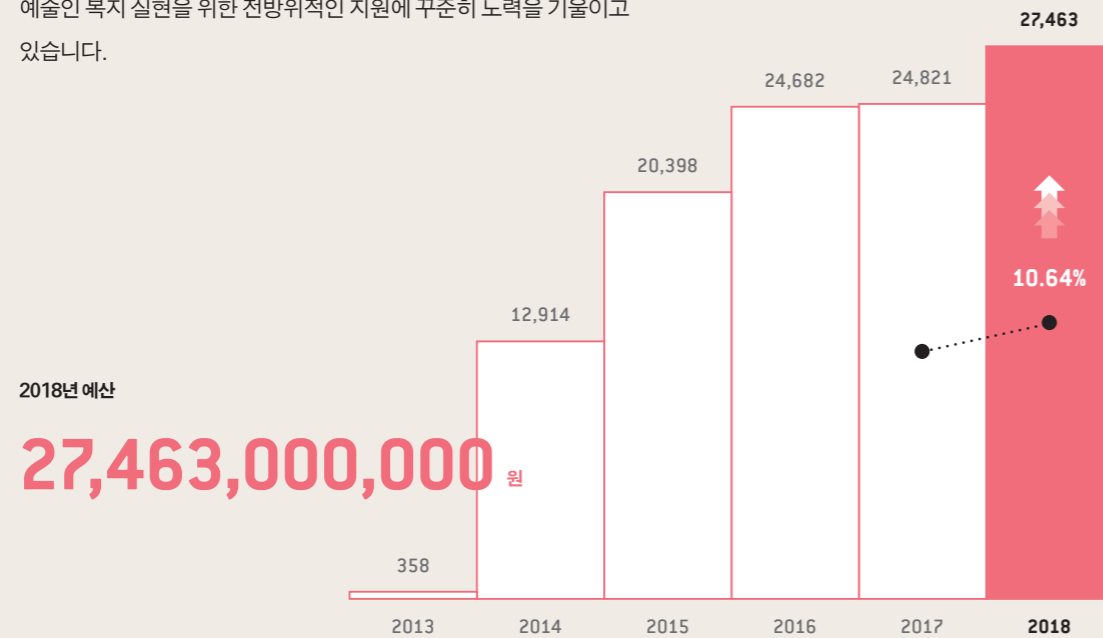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예술인 복지 사업

Business Highlights

7 years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쓰이는 재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0.64%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 직업역량강화, 창작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사회보험료 등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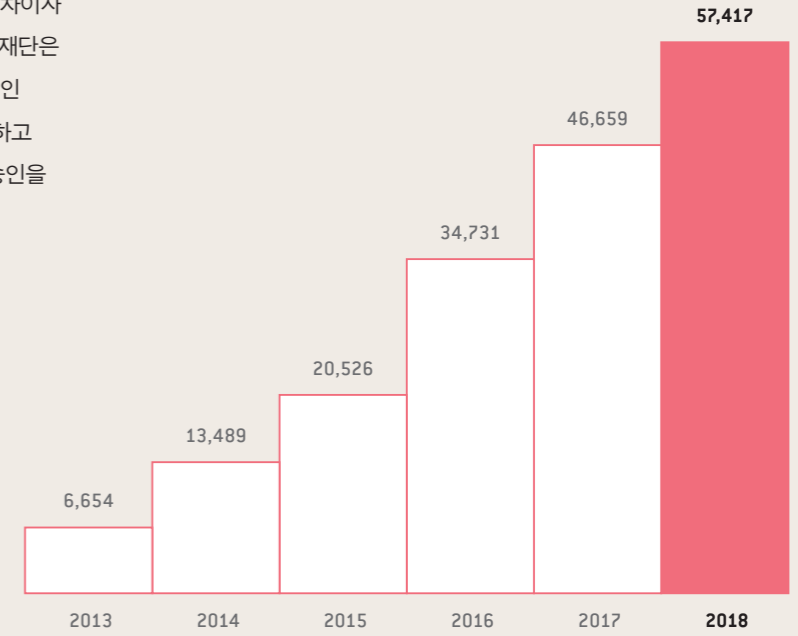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 현장에서 아직도 생소한 절차인 예술활동증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여 지금까지 57,417명의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8년 누적

57,417 명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하여 실질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들에게도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 확대의 기회를 지원하여 지금까지 16,038명의 예술인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2018년 누적

16,038 명

연도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인원
2018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1인 300만원	4,501명
2017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1인 300만원	4,014명
2016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1인 300만원	4,000명
2015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1인 300만원 (원로200만원)	3,523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는 다양한 예술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기업, 기관 등 사회적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합니다. 또한 예술적 기획·협업구조 모델을 만들어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문에 접목되어 문화, 산업, 경제로 예술인의 가치가 확대되도록 합니다. 2018년에는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등 총 1,000명의 예술인이 참여했습니다.

2018 1,000	2017 1,000
2015 509	2016 1,014
2014 337	

2018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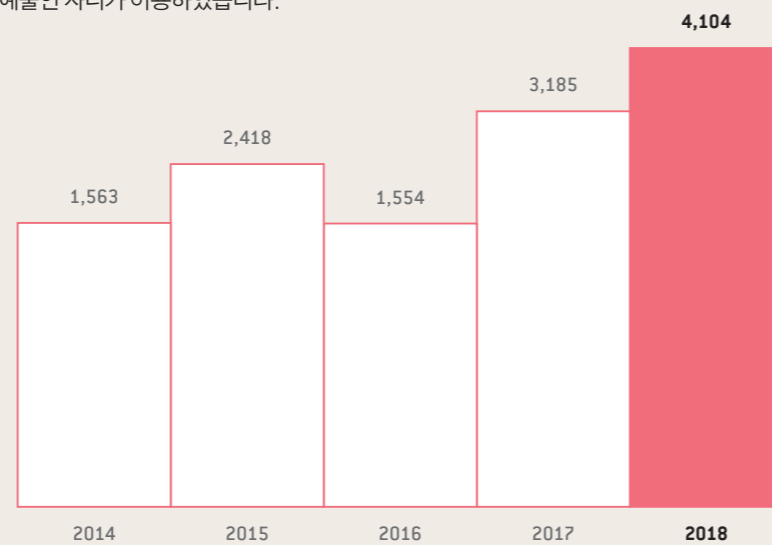
3,860 명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설 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시간제 돌봄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2016년부터 공연예술뿐 아니라 전 분야의 예술인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금까지 12,824명의 예술인 자녀가 이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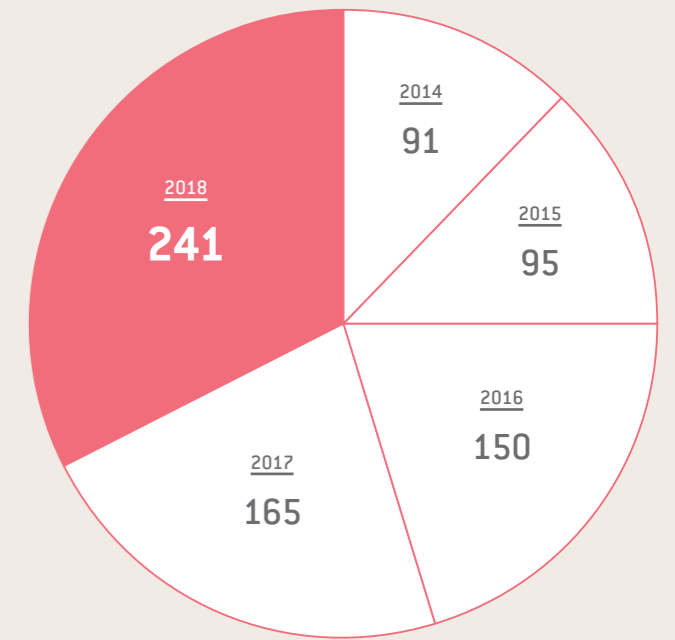
2018년 누적

12,824 명



예술인 신문고

예술활동 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시행령 제3조의3) 2018년까지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는 총 742건이며 상담 건수는 526건입니다.



2018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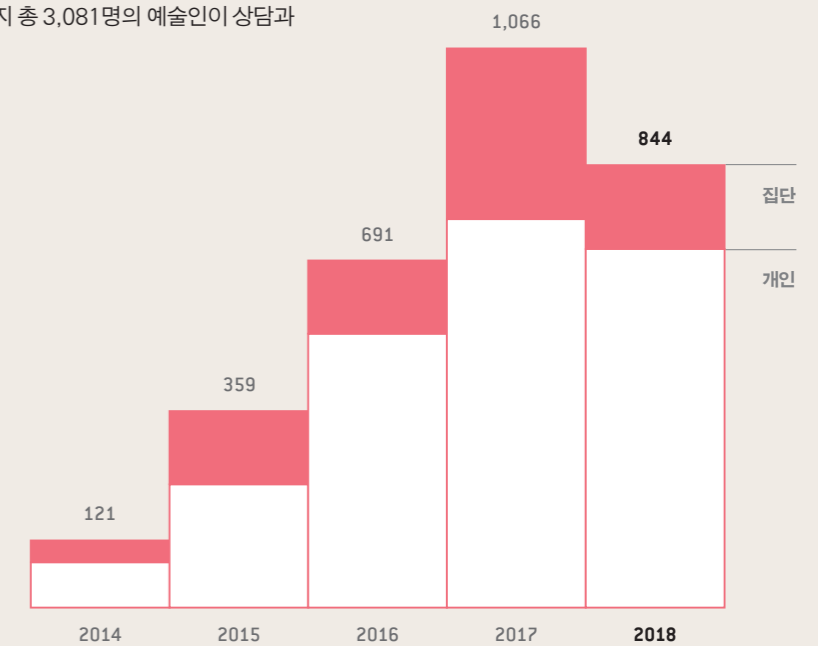
742 건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예술인의 스트레스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되어 2018년까지 총 3,081명의 예술인이 상담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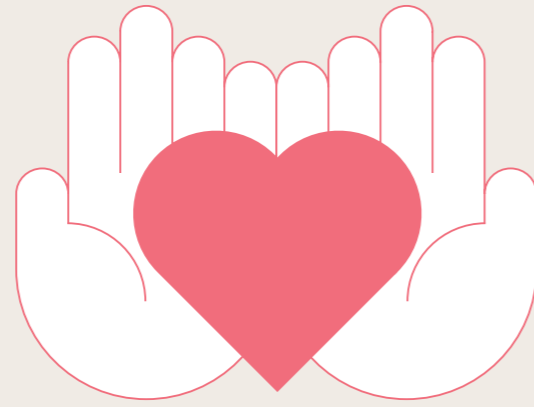
2018년 누적

3,081 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 유지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를 개선합니다. 또한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나갑니다. 2018년까지 4,194건, 210개 사업자(단체)가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았습니다.



2018년 누적

4,19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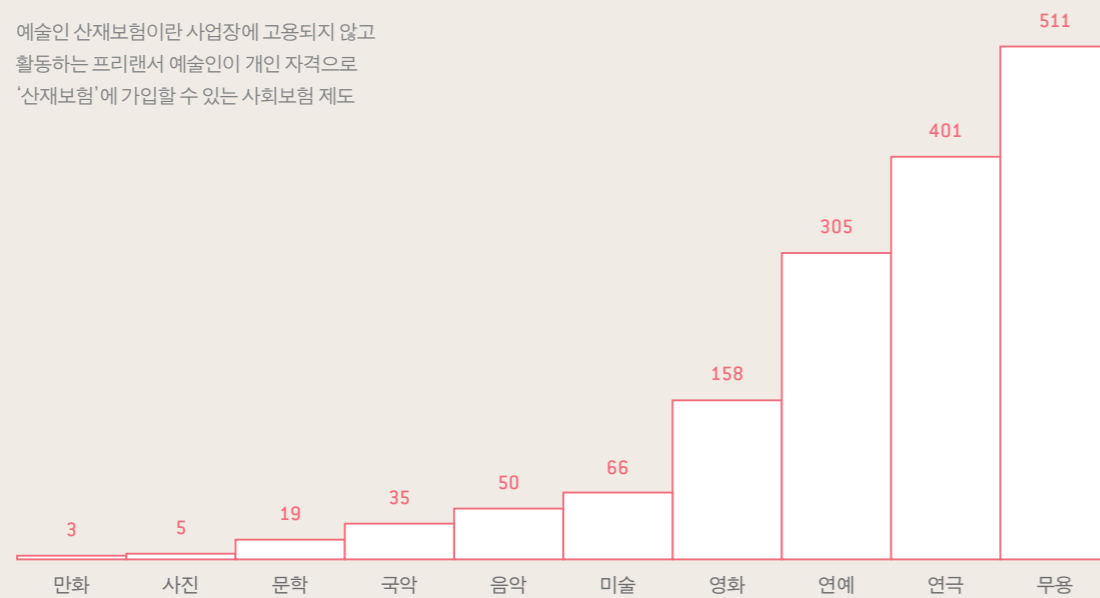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일반 근로자 등과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의 50~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2018년까지 산재보험 누적 가입자는 1,553명에 달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개인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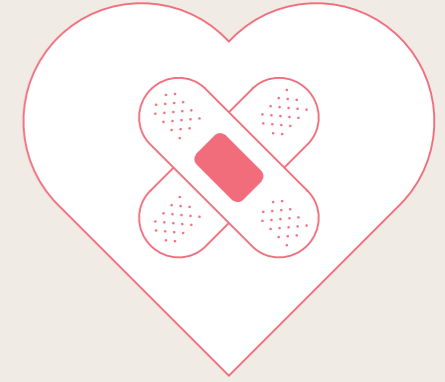
2018년 누적

1,553 명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예술계 내의 성폭력 문제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위기상황 대처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여 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2018년, 31건의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을 지원하였고, 174명의 예술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총 8회)을 수강하였습니다.



피해 신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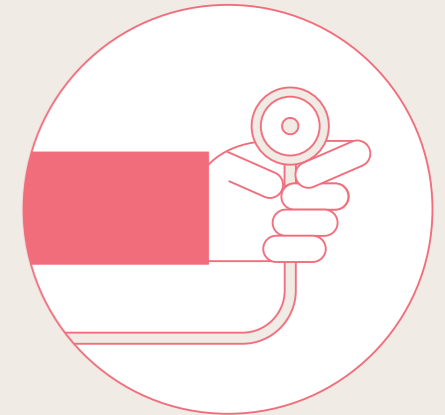
31 명

성폭력 예방 교육

174 명

예술인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의 복귀와 지속을 도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 총 17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누적

178 명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예술계에 진입할 예비 예술인이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업 및 예비예술인 8,1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누적

8,171 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KAWF Overview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예술인 복지 전담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예술인 복지의 실현은 단지 예술인의 행복만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술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예술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친구처럼 늘 곁에 있겠습니다.

미션 및 비전

Mission & Vision

슬로건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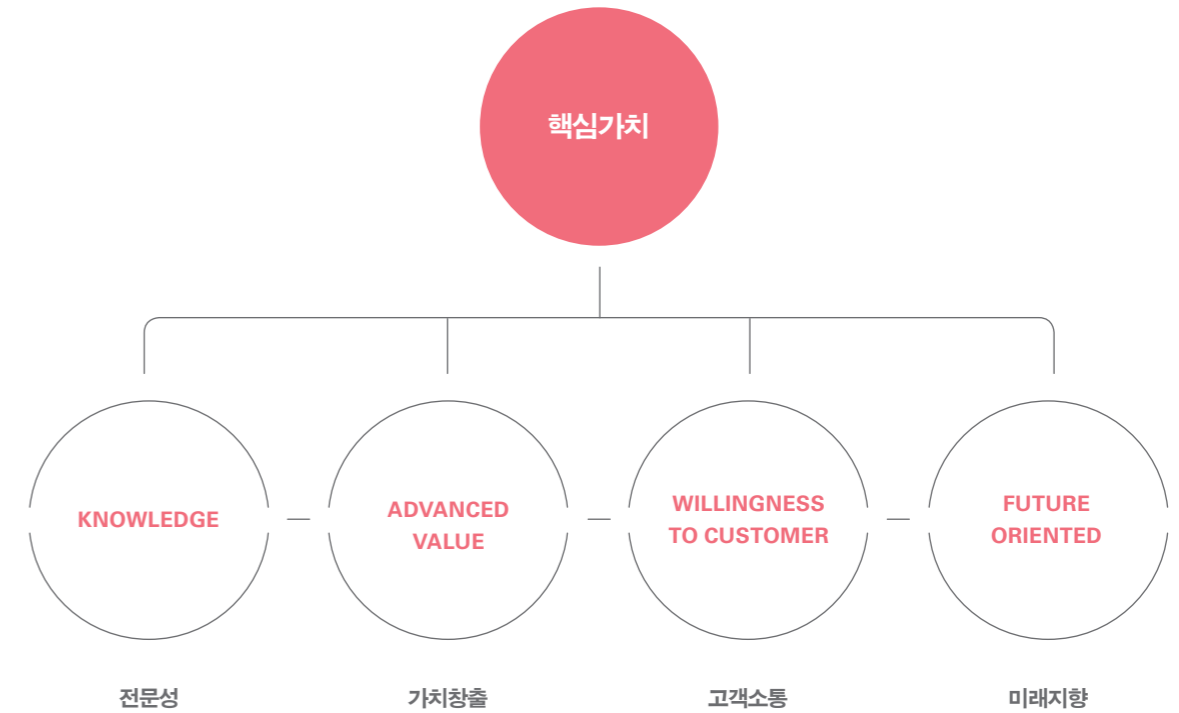


설립 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기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하고,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략목표 및 과제

예술인의 권익 제고	예술인의 생활안정망 지원	예술인의 가치 확산	재단 경영의 내실화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마련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조직 역량 강화
직업적 권리 보호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예술인의 다양한 활동기회 마련	고객만족 실현

연혁

History



- 2011 10. 예술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1. 예술인 복지법 제정

- 2012 0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09.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
- 1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무회의 통과
- 예술인 복지법 시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대 이사장 김주영 취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심재찬 취임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소식

- 2013 07.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09.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 10. 예술인복지 정책토론회 (총 4회)
- 11. 농촌재능나눔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 12.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 0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오픈
- 03.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 04. 반디돌봄센터 개소(대학로)
- 05. 문화예술옹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 06.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업무협약 체결)
- 07. 창조산업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 취임
- 12.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 직제개편



- 2015 01.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 04. 연구자료기탁 업무협약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2015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05.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 2016 0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5.4시행)
- 문화·예술인패스사업 이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대 이사장 이문열 취임
- 03. 예술인복지 홍보대사 위촉(배우 이순재)
- 08.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 09.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총 15개 광역/기초 문화재단)
- 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 (12.30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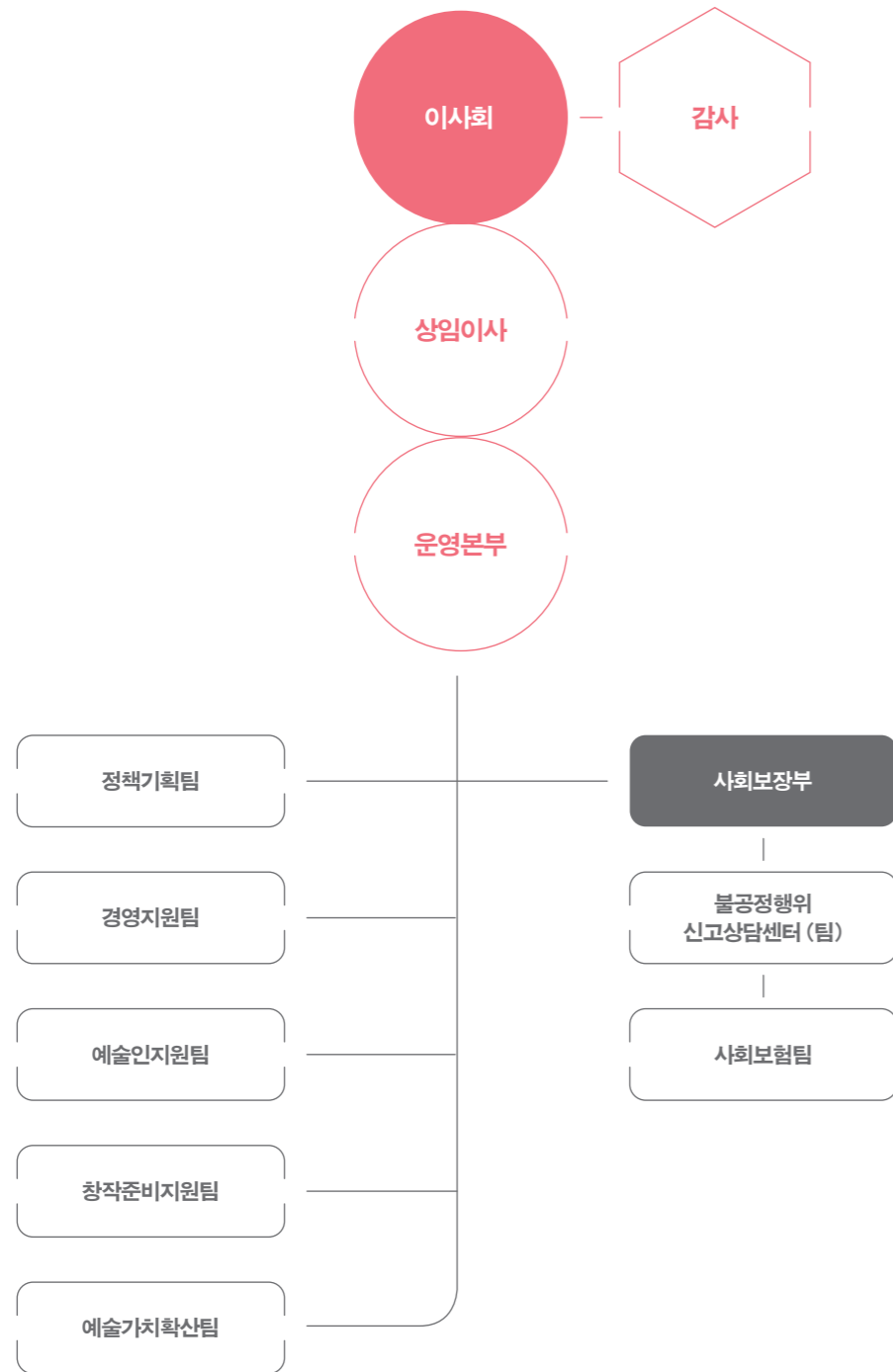
- 2017 03.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개소(마포)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 09.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창출" 국제세미나 개최
- 12.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제도 개선 공청회
-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개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반(연구 등) 구축

- 2018 01. 직제개편
- 0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희섭 취임
- 06.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윤영달 취임
- 10.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 2019 02. 20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 04.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조직도

Organization



팀명	업무분장												
정책기획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기획 및 평가분석 2 홍보 3 국회 및 대외 업무 4 조사·연구 5 예술인금고(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6 기타 정책 사업 												
경영지원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업무계획 수립 2 예산편성·기획·관리, 계약 3 자체감사 4 이사회 운영지원 5 규정 제·개정 및 제도 관리 6 법인 인감 및 직인관리 7 인사·노무·직원교육·근태관리 8 회계·총무 9 웹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10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 												
예술인지원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술활동증명 지원 2 재단 사업 안내 및 응대 3 예술인패스 4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사업 												
창작준비지원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 예술인 지원 2 원로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예술가치확산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술인 파견 지원 												
사회보장부	<table border="0"> <tr> <td>불공정행위 신고·상담 센터(팀)</td> <td>사회보험팀</td> </tr> <tr> <td>1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td> <td>1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산재보험) 지원</td> </tr> <tr> <td>2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td> <td>2 고용보험료 지원</td> </tr> <tr> <td>3 불공정 행위 상담 신고 접수 및 소송지원</td> <td>3 의료비 지원</td> </tr> <tr> <td>4 상담·컨설팅 지원 등</td> <td></td> </tr> <tr> <td>5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지원</td> <td></td> </tr> </table>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센터(팀)	사회보험팀	1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1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산재보험) 지원	2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2 고용보험료 지원	3 불공정 행위 상담 신고 접수 및 소송지원	3 의료비 지원	4 상담·컨설팅 지원 등		5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지원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센터(팀)	사회보험팀												
1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1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산재보험) 지원												
2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2 고용보험료 지원												
3 불공정 행위 상담 신고 접수 및 소송지원	3 의료비 지원												
4 상담·컨설팅 지원 등													
5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지원													

예산 현황

Budget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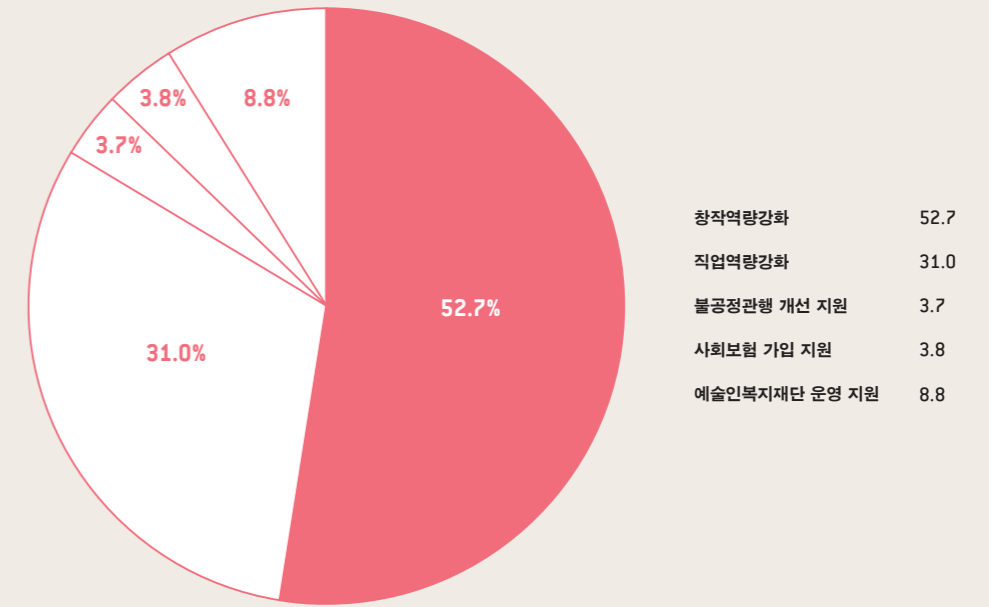
2018년 예산

단위: 천 원(국고 기준)

세부사업명	2017	2018
창작역량강화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12,645,000	13,954,000
·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직업역량강화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로)	8,238,000	8,191,000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1,080,000	975,000
사회보험 가입 지원	1,000,000	1,000,000
예술인복지금고 구축지원	-	1,000,000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1,858,000	2,343,000
총계	24,821,000	27,46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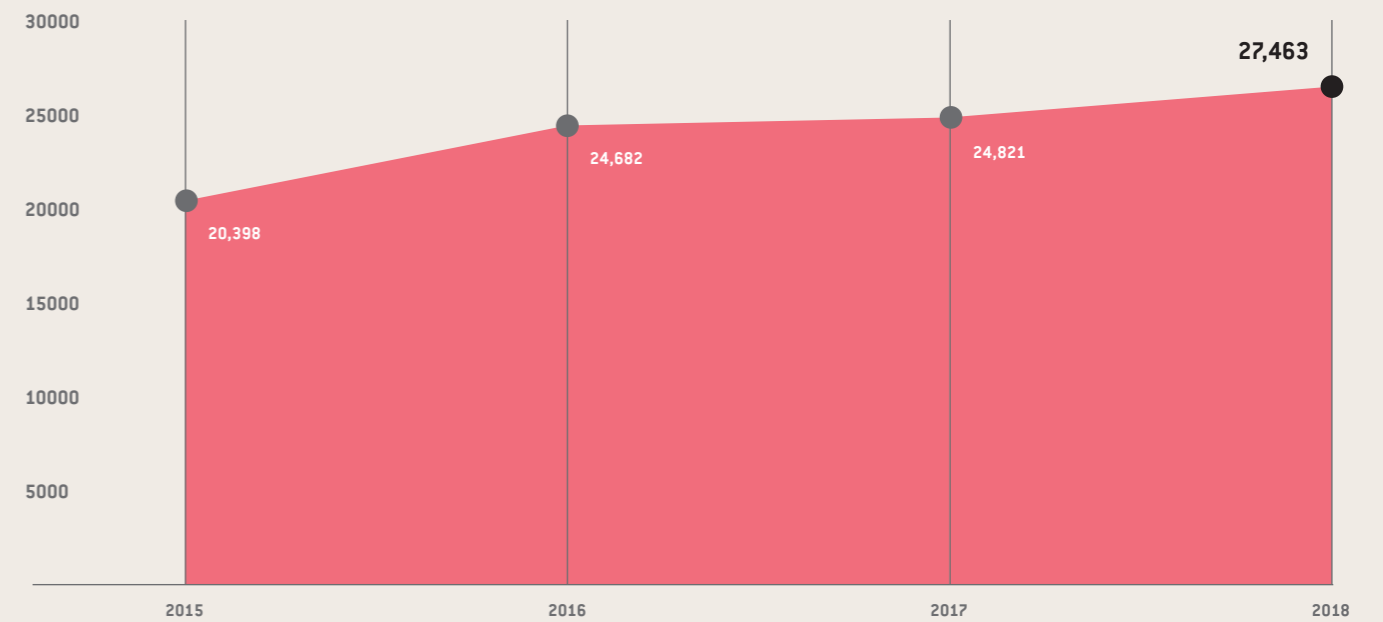
2018년 사업별 예산 편성

2018년 예산은 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에 집중하여 사용되었습니다.



2015 - 2018년 예산

단위: 백만 원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예술인 역량강화

3 불공정관행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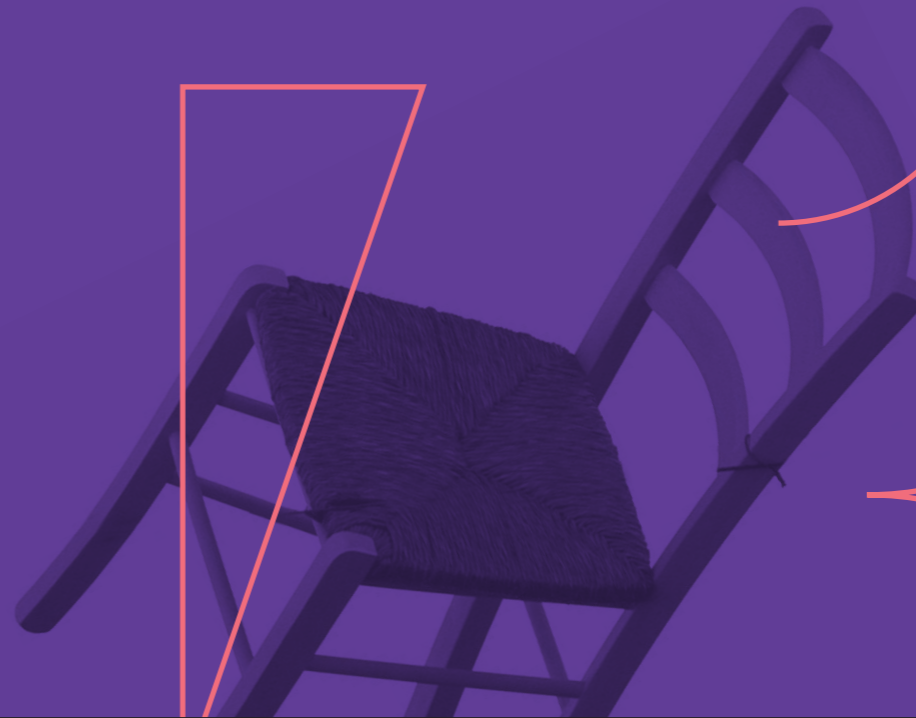
예술인 신문고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4 사회안전망 구축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
예술인 의료비 지원

5 예술활동증명 및 기반 조성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창작역량강화

Stabilization of Creation

예술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창작역량강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 확대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입이 없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창작디딤돌)',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2015년 '창작준비금 지원'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예술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북돋우고 창작 안전망을 구축해왔습니다. 2018년까지 총 15,629명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누적 수혜 인원
15,629 명

1인당 지원금
3,000,000 원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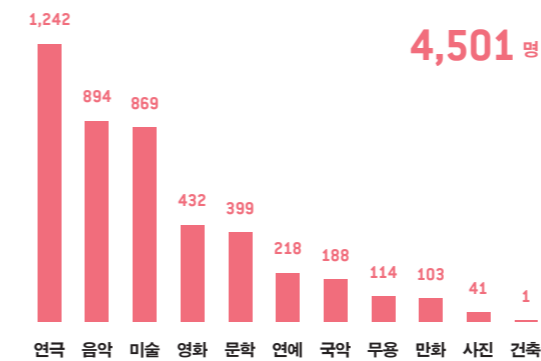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평생 예술에 헌신해 온 원로 예술인들을 제대로 대우한 뜻깊은 사업입니다. 이는 예술활동 지속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창작활동의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지원금도 2015년 1인 200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1인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만 70세 이상,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
409 명

1인당 지원금
3,000,000 원



2018년 분야별 창작준비지원금 수혜현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50%(신청인이 피부양자)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1건)
-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의 경우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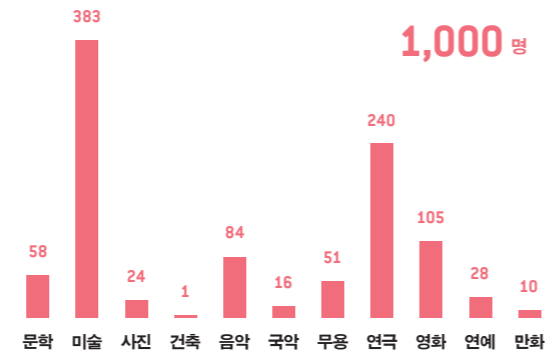
직업역량강화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직업역량강화' 사업은 예술인 생활 지원이라는 일반적 복지를 넘어 적극적인 예술인 복지를 통해 예술적 개입을 통한 사회의 혁신 등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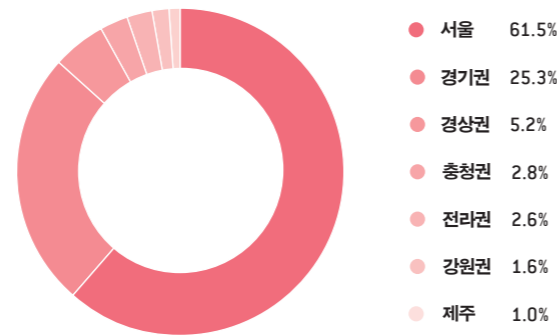
2018년 분야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수혜자 현황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예술인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며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를 통해 예술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기관, 지역과 예술인을 연결하고 적극 지원한 결과, 예술인의 활동 영역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적극적인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성과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술적 기획·협업구조 모델을 만들어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문에 접목되어 문화, 산업, 경제로 예술인의 가치가 확대되도록 합니다. 2014년에는 참여 예술인 337명과 참여 기업·기관 177개에 불과했던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2018년에는 1,000명의 예술인과 232개 기업·기관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8년 지역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수혜자 현황



2018년 수혜 인원

1,000 명

2018년 수혜 기관

232 개



예술인 역량강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된 예술인 역량강화 사업은 사회영역(기업·기관 등)에 확장할 수 있는 예술활동으로 기업·기관의 구조 및 생리파악과 학습공동체 모델을 통한 실습으로 예술인의 현장 적응력 및 직업역량 향상을 도모합니다. 온라인 강의(4회차)와 오프라인 강의(8회차)를 제공함과 더불어 신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개 역할로서의 전문성 향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의 수강

887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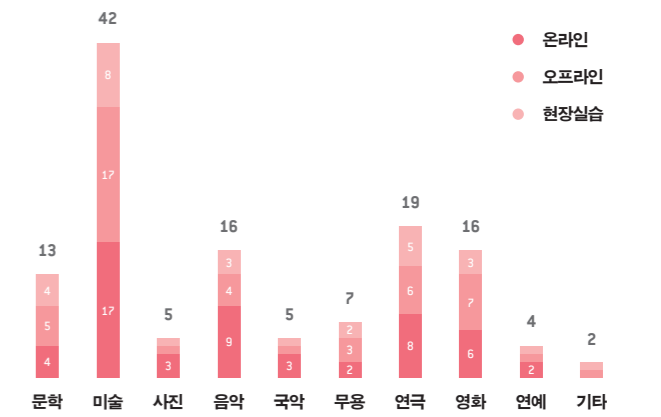
현장실습 진행

29 명

연령별 온·오프라인 강의, 현장실습 통계(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온라인	4	20	16	11	3
오프라인	5	15	15	9	2
현장실습	4	8	9	7	1
합계	13	43	40	27	6

장르별 온·오프라인 강의, 현장실습 통계(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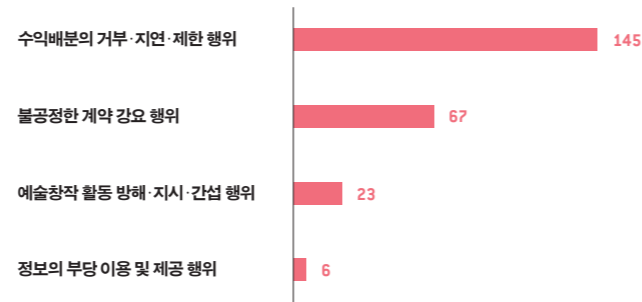
불공정관행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불공정관행 개선’은 예술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고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예술인의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은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창작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2018년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예술인 신문고 지원 절차

- 1 사전 상담 신고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및 전화, 온라인 신고 상담
- 2 사실 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 관계 조사 후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3 문화예술 공정위원회 상정** 조사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조정
- 4 시정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 거쳐 시정 명령 / 시정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5 소송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비용 지원 가능한 예술인
 -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200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하인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상인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원검토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구제와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을 구축해 예술계에 안전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사례비 미지급, 불공정 계약 등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241건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창구 상설 운영을 통해 366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온라인, 전화, 대면상담).

2018년 예술인 신문고 접수 건수

241 건

2018년 법률상담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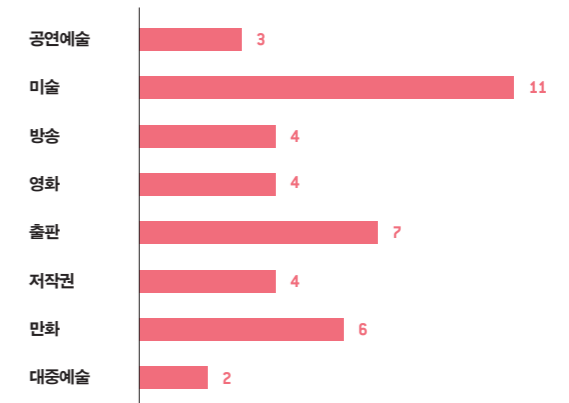
366 건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은 예술 현장의 무계약, 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회 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단은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계약 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분야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업)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와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과 연계한 ‘예비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20회의 강의를 진행하여 63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18회의 찾아가는 특강을 통해 1,212명의 예비 예술인이 표준계약서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구애받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5차시로 구성된 ‘예술인 권익 보호의 이해’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였습니다.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야별 표준계약서 종수

41 종

2018년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수강 인원 (38회 교육)

1,846 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 심리상담과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사업은 201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은 2018년 28개 기관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844명의 예술인이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12개 이외에도 전국의 다양한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이 있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불편 없이 총 12회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처음 시범 운영 후 만족도가 높았던 예술인 마음 치유 캠프와, 개인 심리상담 종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상담을 운영을 통해 예술인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많은 예술인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였습니다.



2018년 개인 심리상담 건수

684 건

2018년 집단 심리상담 건수

160 건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은 미투 운동으로 대두된 예술계의 성폭력 문제 개선을 위해 피해 예술인의 위기상황 대처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성폭력 이해 및 성평등 인식 제고를 통해 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8년 6월 20일

예술인성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여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시 법률상담, 소송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관련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8회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을 통해 총 174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였고, 전문강사 양성지원을 통해 총 19명의 강사가 위촉되어 예술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2018년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건수

31 건

2018년 성폭력 피해 지원건수 (지원분야 중복 건 포함)

32 건

2018년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인원 (총 8회)

174 명

2018년 심리상담 지정기관 명단

서울(12)	그랑조행복찾기심리상담센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8길25 레미안팰리스상가 4층 010-6335-0391 다움심리상담센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6 대정프라자 602호 02-2672-1377 라포심리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여의도백화점 918호 02-780-5501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32길22 1층 02-821-5953 마음의숲심리상담센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13 대림아크로텔 2913호 02-2187-7499 새봄심리상담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골든타워 1006호 010-3565-7294 세인임상심리연구소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84 현대레이크빌 306호 02-6287-1275 이수심리상담센터 서울 동작구 사당로 268 (사당동 1001-33) 2층 02-523-5283 이화심리상담센터 서울시 도봉구 창동 331-2 중앙빌딩 4층 402호 02-999-5232 심리상담연구소 함께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저식산업센터 A동 408호 02-2104-6833 임선영 심리상담연구소 서울 양천구 목동로 293 현대41타워 2907호 02-6671-9090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서울)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성동삼성세르빌 상가 209호 02-2295-5574	강원권(3)	지우심리상담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0 노빌리티타워 1703호 033-744-1579 상담센터 나무 강원 춘천시 춘천로 180 봄내병원 1층 033-255-8515 심리상담센터 아낌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8 2층 033-263-1155				
	충청권(3)		손애리심리연구소 대전 서구 둔산로 133 현대아이텔 418호 010-4174-0060 충북심리건강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33 043-283-2841 학습&마음심리상담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아이파크 2차 211동 703호 041-558-3837				
			경상권(3)	강박사마음&학습상담센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7, A동 3609호(재송동, 센텀스카이버즈) 051-703-2870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대구)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306호 053-657-6571 참마음심리상담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1번길 16 054-276-9175			
				전라권(3)	사단법인 심리건강연구소 광주 동구 남문로 758 2층 062-512-0039 최영미마음상담센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111 이상클리닉빌딩 4층 062-263-7942 온다라 심리교육상담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영진빌딩 5층 501호 063-273-5496		
					제주권(1)	내마음의 펄컨 제주시 연화중길 12-9 301호 070-4213-8080	
						경기권(3)	이든생가족아동청소년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평촌아크로타워 A동 1211호 031-478-9958 파크심리상담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중앙노블레스 6층 031-405-8255 로댕심리학습상담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514호 031-904-4569

사회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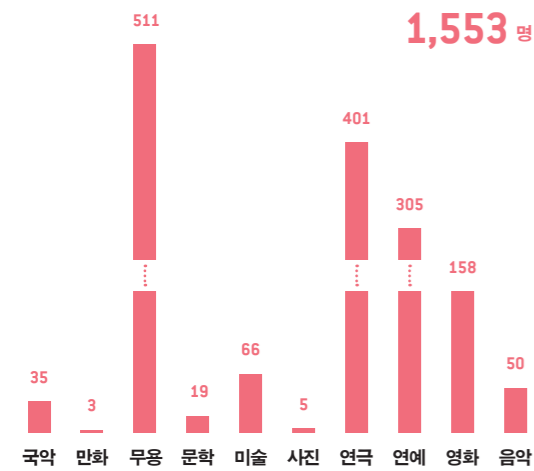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은 예술인이 안정된 제도망 안에서 보다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해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활동 중 재해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예술인의 등급별 산재보험료를 50~90% 지원하고 가입대행 등 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222명의 신규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1,553명의 예술인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예술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 산재보험 누적가입자 현황



2018년 산재보험 가입유지자

789 명

누적가입 인원

1,553 명

예술인 산재보험 소개

예술가의 활동을 사회보험이 보호합니다

-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치료와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은**
프리랜서 예술인도 직업 예술활동(예술활동 계약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의 장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지원

- **치료비와 생활보조금 지원**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업무상 재해 발생시 치료비부터 생활보조금, 장해, 유족급여까지 폭넓게 보장
- 2 민간보험은 보장의 한도를 정하지만, 산재보험은 부상 정도에 따라 지원 혜택이 변하고 치료비의 한도 제한이 적음
- 3 가입 연령과 직업, 과거 병력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음

보험료 지원

보험료 50~90% 지원 경제적 부담을 적게!

- **월 보험료 19,170원~70,960원 (실연예술인 경우)**
1 12개 등급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
2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일부 혜택(휴업급여 등)이 커짐
- **보험료 50% 지원 (본인부담금 9,850원~35,480원)**
신규 가입자 90% 지원 (본인부담금 1,980원, 1등급 6개월간)
예) 가입 후 첫 6개월간 월 본인부담금 1,980원(90% 지원) 이후 9,860원(50%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회보험 제도는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도 활짝 열려 있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체결 사용 조건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산해 왔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산재보험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 중·장기적으로 예술인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018년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

1,138 명

2018년 사회보험료 지원 문화예술사업자(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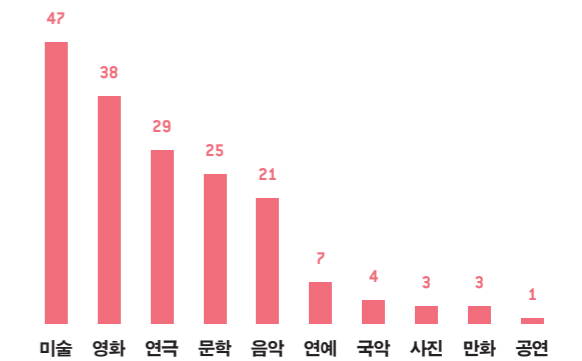
63 개



예술인 의료비 지원

2013년부터 6년간 시행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과 과도한 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출' 상황으로 고통 받는 예술인에게 의료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6년간 시행된 의료비 지원금 예산은 총 5억 7천 8백만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총 178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신청 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80% 이하 예술인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대신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조항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



의료비 지원 총 예산

578,000,000 원

예술활동증명 및 기반 조성

Validation of Artistic Activities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행복주택사업, 누리과정 등 다양한 복지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예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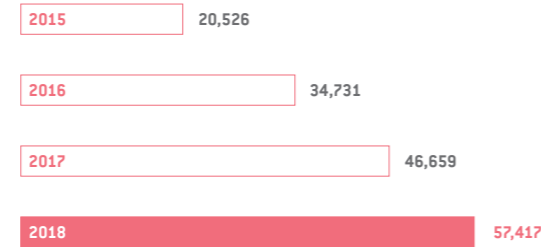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1개 예술 분야(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누적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57,41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과 수입 내용과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57,417 명

2018년 예술활동증명 연도별 누적인원



2018년 활동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57,417 명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5,143	12,479	1,079	22	10,399	2,696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2,403	10,406	5,733	2,948	1,236	2,873



예술인패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6년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인패스사업’을 이관받아 ‘예술인패스(Art Pass)’ 카드 발급률을 높이고, 문화예술인패스 참여 기관 확대에 힘써 왔습니다.

예술활동증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예술인패스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 자긍심을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2018년 12월 기준,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는 총 55,268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참여기관은 478개로 2% 증가하였습니다.

예술인패스 접수기간·방법

신청	매달 10일, 25일 접수마감
발급	매달 12일, 27일 재단발급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예술인패스 홈페이지 artpass.kawf.kr 예술인패스 모바일페이지 first.kawfartist.kr

누적 발급 인원

55,268 명

누적 참여 기관

478 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의 어려운 현실과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제도를 준비하였습니다.

2018년 시작된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예술인의 생활 및 창작활동 등과 관련된 제반 환경을 고려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상품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운영 제도를 정립하였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심사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전월세(창작 공간 포함) 보증금 등을 연 2.5~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통계자료

Statistics

예술활동증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2015	3,493	8,584	4,497	2,307	1,067	486	92	20,526
2016	6,911	13,985	7,016	3,705	1,947	979	188	34,731
2017	9,189	18,933	9,000	5,127	2,754	1,350	306	46,659
2018	10,544	22,903	11,246	6,705	3,778	1,791	450	57,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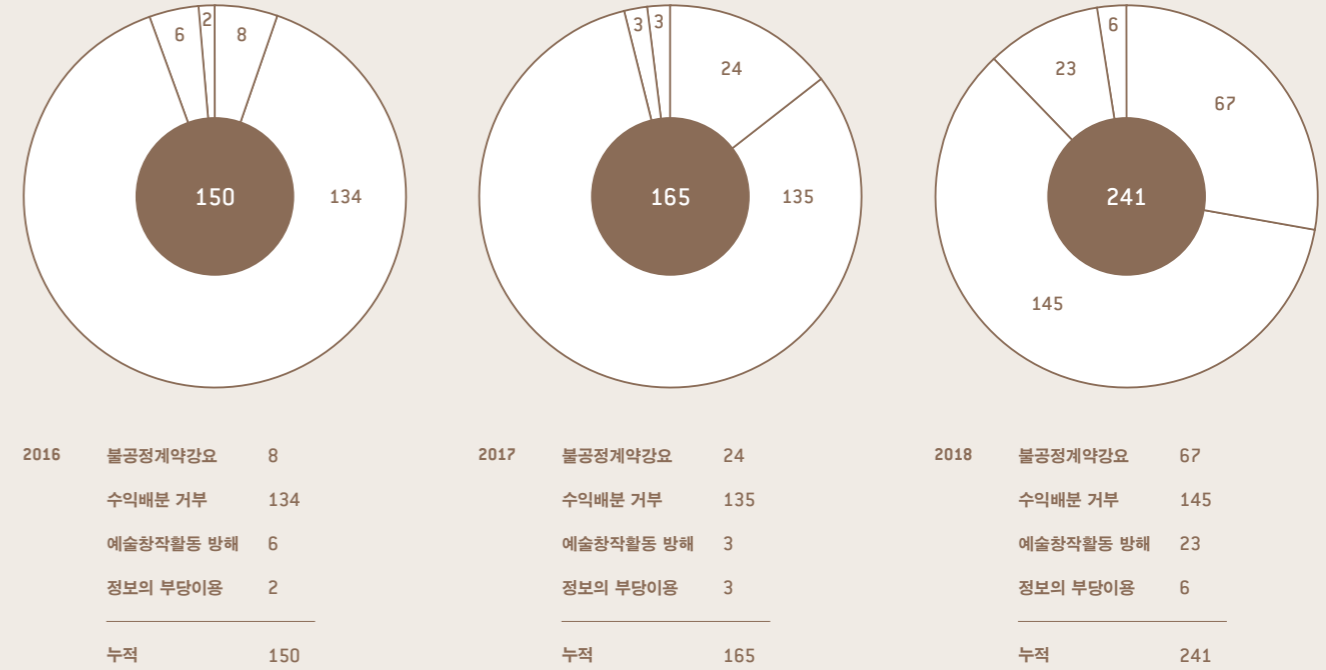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2015	1,781	5,493	432	6	2,477	900	1,126	4,596	2,403	464	242	606	20,526
2016	2,869	7,881	625	5	5,731	1,541	1,653	7,020	3,507	1,841	544	1,514	34,731
2017	3,991	10,063	832	11	8,194	2,134	2,084	9,057	4,774	2,433	849	2,237	46,659
2018	5,143	12,479	1,079	22	10,399	2,696	2,403	10,406	5,733	2,948	1,236	2,873	57,417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5	10,055	658	423	862	426	415	87	13	5,312
2016	16,412	2,059	879	1,434	577	679	269	34	8,583
2017	21,406	2,994	1,139	1,920	742	901	581	82	11,146
2018	25,396	3,532	1,365	2,342	1,023	1,140	881	126	13,38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5	339	234	190	466	271	208	427	140	20,526
2016	540	377	367	665	411	391	836	218	34,731
2017	705	499	500	971	528	543	1,696	306	46,659
2018	874	627	649	1,396	639	669	2,964	413	57,417

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건수



불공정행위 신고사건 진행현황(2018.12.31. 기준)

구분	처리 중				사건 종결					신고 절차 종료	누적
	사실조사	시정권고	시정명령	조정	시정명령	시정조치/소송지원	화해조정	소송지원	별도조치 불요		
2016	0	0	0	0	0	0	4	85	34	27	150
2017	4	0	0	0	0	0	0	66	75	20	165
2018	94	0	0	0	0	0	10	36	86	15	24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2016	937	1,751	711	300	133	134	34	-	4,000
2017	1,214	1,536	619	303	156	149	31	3	4,014
2018	899	1,925	840	422	214	163	33	5	4,501

지역별

구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제주	세종
2016	2,114	182	88	88	162	52	11	26	3
2017	2,073	152	81	87	200	55	22	25	8
2018	2,211	182	90	106	227	66	17	44	6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2016	61	893	62	52	30	68	61	47	4,000
2017	45	890	96	55	39	87	60	39	4,014
2018	69	1,034	105	74	42	107	53	68	4,501

분야별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2016	252	800	46	1	790	143	91	1,070	387	123	72	225	4,000
2017	301	748	54	-	846	144	91	1,151	441	146	92	-	4,014
2018	399	869	41	1	894	188	114	1,242	432	218	103	-	4,50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궤(로)

연령 및 성별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남	여	합계
2016	1	123	568	255	51	16	0	1,014	438	576	1,014
2017	0	121	579	244	50	5	1	1,000	387	613	1,000
2018	0	104	610	244	36	5	1	1,000	394	606	1,000

지역별

구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제주	세종
2016	607	31	13	20	21	10	2	13	2
2017	579	31	13	21	17	16	10	12	2
2018	615	44	13	18	11	8	13	10	1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2016	18	230	13	3	8	14	3	6	1,014
2017	21	225	9	6	2	21	1	14	1,000
2018	16	209	7	3	2	16	1	13	1,000

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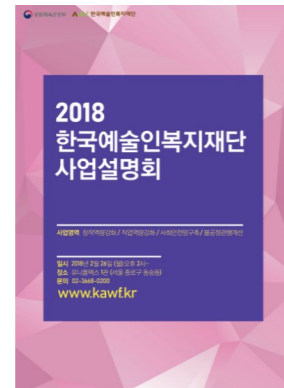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다중	합계
2016	83	428	32	1	106	25	43	171	92	22	11	0	1,014
2017	83	372	30	1	92	18	43	210	114	29	8	0	1,000
2018	58	383	24	1	84	16	51	240	105	28	10	0	1,000

2018 주요 활동 뉴스

News

2018.02.23

2018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2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유니플렉스 1관(600석)에서 '2018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예술인 복지사업 시행 첫해부터 해마다 진행되어온 사업설명회는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법률·저작권·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 상담이 이뤄지는 소통의 장이다. 2018년에 추가, 변경된 예술인 복지사업의 신청방법, 사업 기간, 심사 기준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 예술인 복지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술지원제도 중 유일하게 예술인의 '창작 준비기'를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의 제도 변화이다. 재단은 26일 서울 사업설명회 후 지역별·장르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 사업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재단 홈페이지나 온오프믹스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2018.02.23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취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이문열)은 2월 23일(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을 임명했다. 정희섭 신임 상임이사의 취임식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개최되었다. 정희섭 상임이사는 서울대 불어교육과와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극단 현장 대표, 민예총 정책실장, 국립극장 공연과장 등을 거치면서 현장과 행정 경험을 두루 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정희섭 상임이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술인의 친구가 되자. 예술인복지 사업으로 예술인의 꿈과 열망을 응원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2018.06.20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6월 20일(수)부터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7년부터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3월에는 성평등센터 '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의 MOU를 통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준비하는 등 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폭력 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 및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술인심리상담 지정기관으로 연계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의 1: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예술계 성폭력 문제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예술 분야별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 근절과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상담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 상담 대표전화(02-3668-0266)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게시판 및 이메일(withu@kawf.kr)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8.06.27

윤영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취임



2018년 6월 27일,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윤영달 회장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평소 국악에 대한 열정으로 2004년부터 국악 명인이 참가하는 국악공연 '창신제'를 매년 개최하고 2015년부터는 매주 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영재 국악회를 열어 초등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는 윤영달 이사장은 음악뿐 아니라 미술 등 문화예술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임직원들의 AQ(Artistic Quotient·예술가적 지수)를 키워 제품 속에 예술적 의미를 담아내도록 하는 예술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영달 이사장은 "평소 예술을 좋아하고 예술가들과 가까이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다.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2018.08.20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 오픈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8월 20일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을 오픈한다. 최근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안이 발표되며 프리랜서 예술인을 둘러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사회보장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픈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스템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은 기존 우편, 이메일 신청 외에 새롭게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원스톱으로 연계해 산재보험에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진행상황과 가입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9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 1,980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5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 9,850원)를 지원한다. 2등급부터 12등급까지 전 가입자의 보험료도 50%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지난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함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연극,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약 1,500여 명이 가입했다.

2018.09.0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8월 31일(금), 문화예술인들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 및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예술인 창작 및 저작권 분야 공정거래 환경 구축, 문화예술인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등 종합 서비스 체계 마련, 문화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기타 예술인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계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컨설팅(02-3668-0200) 및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1800-5455, 내선번호 4번)을 통해 저작권 전문 변호사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등 전문 컨설팅에 의한 상담·컨설팅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20인 이상의 단체를 상대로 '찾아가는 상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를 통해 수시로 법률전문가와 대면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는 예술계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예술현장의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9.0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녹색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2017년, 서울시로부터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전망병원>으로 지정된 녹색병원(병원장 김봉구)이 9월 6일, 예술인 복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기존 의료 사업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가들을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 협약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녹색병원은 예술활동 중 상해를 입은 예술인, 성폭력피해 예술인 등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 예술인패스 소지자들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혜택, 공동 교육자료, 건강강좌 공동개설, 기타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향후 예술활동과 관련된 작업 중 상해를 입거나 성폭력 피해로 인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와 심의를 거친 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예술활동 중 다친 것 또한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이라며, "현재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한해 지원을 하게 됐지만,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측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2018.09.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12회 다산대상> 수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제12회 다산대상> 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다. 남양주시와 남양주다산문화재단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다산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본받아 사회와 이웃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개인 및 단체를 선발해 포상한다. 문화예술, 실용과학, 사회복지, 청렴봉사 등 4개 분야로 나뉘 분야별 전문가와 추진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창작의 기회 및 환경 마련,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의 기회 및 환경 마련, 예술인만을 위한 일자리 발굴, 1,136개 지역·기업·기관 상호매칭 및 협업프로젝트 지원 등 예술인복지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식은 9월 15일(토)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유적지에서 열렸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대표해 정희섭 대표가 수상했다. 정희섭 대표는 "이 상은 현장에서 우리 재단의 활동을 지지·격려해준 예술인들과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의 힘으로 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익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8.10.24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에 필요한 운영·홍보 및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월 24일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설립추진위원회는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술·예술경영·언론계 등의 인사로 구성하였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8.11.06

**장애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11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를 지원한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상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11개 예술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또는 예술활동 수입 등이 있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을 받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김정 센터장은 "이번 현장 접수 및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현장 접수 또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의 협력 제휴를 통해 정례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학,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2018.12.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한국심리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사)한국심리학회(회장 조현섭, 총신대 교수)가 12월 19일(수),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을 통해 문제 예방과 재발을 돕고, 학술 및 공익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사)한국심리학회는 예술인의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심리상담교육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리치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예술인의 심리건강 관련 이슈 및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판물 내 심리 관련 콘텐츠 운영, 양 기관의 학술행사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 협력, 양 기관의 공익사업 및 홍보활동 상호 협력, 예술계 내의 심리학 대중화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혹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을 통해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있어
빛나는 우리의 삶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